

## 전업주부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임의가입 기준완화 및 보험료 보조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 요 약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은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업주부 임의가입자인 경우 가입소득월액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후 소득 재원의 3층보장체계에서 1층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보험이지만 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제도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존재
- ☐ 국민연금의 가입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20~60세 사이의 남성의 45.8%가 가입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25.8%만이 가입되어 있어서 성별로 차이가 존재함.

-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4,864,576명 (우해봉 (2010) 참조로 계산)이며 무소득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인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27,253명에 지나지 않아서 임의가입자가 모두 전업주부라고 가정하더라도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에 가입률은 최대 0.6%에 그침. 최근 내연금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의가입자가 2010년 4월 현재 44,25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수치를 4,864,576명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입률은 0.9%에 그쳐서 채 1%도 되지 못함.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 명의의 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집단임을 나타내는 통계치라고 할 수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임의가입의 경우 가입자의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 임의가입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제언함.
-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성격상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며 수혜기간 또한 길어야 순연금 효과가 나타나고 연금의 중복 급여 발생시 조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해라는 인식 때문임.

- 하지만, 평균적으로 연금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중복급여의 조정이 발생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손해 보다는 크며 그러한 혜택은 노후 소득안정화가 시급한 저소득층 일수록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할 필요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 국민의 1인 1연금 캠페인에 맞추어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입을 가능토록 함. 현재 임의 가입의 경우 기준연도의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인 가계의 전업주 부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하라도 자유롭게 국민연금을 가 입하도록 장려. 가계소득이 평균을 넘는 경우에는 최소 지역가입자 중위 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 조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이 790,000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 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79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35,55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 이러한 보험료보조는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 해 지원하며 예산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만 보조해 주는 방안 을 꾀할 수도 있음.
- 현재 전업주부의 최대 0.6%에서 0.9%만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의가입 장려로 인하여 추가 가입하는 전업주부 가 전체 대상의 5% 대에만 (현재 가입자보다 12배 성장) 달한다고 하더 라도 이들의 임의가입으로 인한 노후소득 안정화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 라고 생각할 수 있음.

<예시>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과 소득대체증가율

가입기간	남편 급여수준	부인 가입수준	남편 소득대체율(%)	남편+ 부인 소득대체율 (%)	증가율
10년	50%	50%	0.19	0.32	68%
		100%		0.36	89%
		200%		0.45	137%
	100%	50%	0.13	0.20	54%
		100%		0.22	69%
		200%		0.26	100%
	200%	50%	0.11	0.15	36%
		100%		0.17	55%
		200%		0.20	82%
20년	50%	50%	0.34	0.58	71%
		100%		0.66	94%
		200%		0.81	138%
	100%	50%	0.23	0.36	57%
		100%		0.39	70%
		200%		0.47	104%
	200%	50%	0.20	0.28	40%
		100%		0.30	50%
		200%		0.35	75%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의 평균소득월액에 대한 연금 급여액의 비율로 계산하였음

#### □ 전업주부 임의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에 따른 소요예산

- 전체 전업주부의 1%가 추가로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이 중에서 기준 소득월액 790,000원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가 50%이며 (이중 1/3이 790,000원의 35%, 1/3이 790,000원의 50%, 나머지 1/3이 790,000원 수준으로 가입

한다고 가정) 790,000원 초과로 가입하는 경우가 50%인 경우의 첫 해 소요예산

가입소득월액	가입인원 (명)	국민연금보험 료 (원/월)	국고보조금액 (원/월)	국고보조 총액 (원/ 1년)
790,000원의 35%	8,075	24,885	12,443	1,205,707,505
790,000원의 50%	8,075	35,550	17,775	1,722,439,293
790,000원	8,172	71,100	35,550	3,486,383,147
790,000원 초과	24,323	71,100 초과	35,550	10,376,140,318
합계	48,646			16,790,670,262

- 전체 전업주부의 5%가 추가로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이 중에서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가 50%이며 (이중 1/3이 790,000원의 35%, 1/3이 790,000원의 50%, 나머지 1/3이 790,000원 수준으로 가입한다고 가정) 790,000원 초과로 가입하는 경우가 50%인 경우의 첫 해 소요예산

가입소득월액	가입인원 (명)	국민연금보험 료 (원/월)	국고보조금액 (원/월)	국고보조 총액 (원/ 1년)
790,000원의 35%	40,376	24,885	12,443	6,028,537,525
790,000원의 50%	40,376	35,550	17,775	8,612,196,464
790,000원	40,862	71,100	35,550	17,431,915,734
790,000원 초과	121,614	71,100 초과	35,550	51,880,701,590
합계	243,229			83,953,351,312

### 3. 정책효과

-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 및 가계 소득의 안정화 : 전업주부의 가입율이 현재 0.6%에서 5%로 증가할 때, 첫째 국민연금 조성 기금은 약 1,700억 이상이 될 것이며, 남편만 가입한 경우와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소 50% 이상 증가하는 가계가 240,000 가계에 이릅니다
- ☐ 1인 1연금 시대를 앞당겨 공적연금제도 선진화를 꾀함.

---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